

日帝下 不二興業會社와 農民收奪

—水利事業을 中心으로—

黃 明 水*

- I. 序 論
- II. 日本人地主形成과 不二興業會社
- III. 不二興業會社와 水利組合
- 1. 益沃水利組合과 藤井寛太郎
- 2. 不二興業會社와 藤井寛太郎
- 3. 不二興業會社와 水利組合
- IV. 不二興業會社의 農民收奪과 水利組合反對運動
- V. 成業社의 形成과 不二興業會社의 吸收
- VI. 結 言

I. 序 言

日帝의 韓國農民收奪은 土地·金融·小作 등 여러 方面에서 행하여 졌으나¹⁾ 여기에서는 不二興業會社의 水利事業을 中心으로 日本人地主에 의한 農民收奪에 대하여 살펴보고, 동시에 이들 日本人地主에 대한 韓國農民의 抵抗 및 反對運動을 살펴 보려 한다. 또한 不二興業會社와 그 創設者인 藤井寛太郎에 대하여도 살펴보고 그 侵略的 性格을 밝혀 볼가 한다.

不二興業會社의 創設者이며 社長이었던 藤井寛太郎은 日帝下 朝鮮에서 水利事業에 차수하여 朝鮮의 「水利王」이라고 불리기까지 되었다.²⁾ 不二興業會社는 그가支配하는 事業 중 가장 큰 事業體이며 거기에서는 주로 干拓과 開墾, 특히 水利事業에 의해서 얻어진 土地를 基盤으로 農場을 형성하여 그 農場에 日本으로부터 移民을 誘致하고, 또한 朝鮮各地에서 農民(移流民)을 유치하여 小作農으로서 勞動을 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藤井寛太郎의 侵略者로서의 行爲도 살펴 볼가 한다.

日本人 移住者들은 韓國農村에 대한 實情에 밝아지자 利益이 많은 韓國農村에 進出하여 高利貸金業者로서 혹은 自作農經營者로서 韓國農民을 壓迫하고, 收奪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不二興業을 비롯한 日本人農場에 朝鮮各地에서 移住하여 온 朝鮮人農民은 水利事業費負擔, 小作

* 本研究所 研究員, 檀國大 商經大 教授(經博). 이 論文의 一部는 移山 趙璣濬博士『華甲記念論文集』에 발표한 바가 있다.

1) 趙璣濬, 『韓國經濟史』(改正版), 日新社, 1974, p.291 이하 참조.

2) 拙稿, 『解放前의 在韓日本人企業家에 관한 史的研究』, 檀大『商經論叢』, 第10輯, 1971, pp.72~73; 참조.

料引上 등에 의해 가혹한 처취를 당하게 되었다. 不二興業會社는 그傘下의 水利組合의 設立에 있어서 朝鮮殖產銀行(당시의 同銀行頭取는 有賀光豊이었다)으로부터 많은 融資를 받고 있었으며 또한 韓國幣制改革의 中心人物인 目賀田種太郎(韓末의 財政顧問)으로부터도 財政支援을 받은 바가 있다.³⁾ 이 외에 日本政府 및 朝鮮總督府의 支援도 받고 있었다.

藤井寬太郎의 不二興業會社가 支配한 代表의 水利組合과 農場은 다음과 같다. 즉, 臨益水利組合과 不二全北農場, 益沃水利組合과 不二沃溝農場, 大正水利組合과 不二西鮮農場, 中央水利組合과 不二鐵原農場 등이 그것이다. 藤井寬太郎은 이들 水利組合과 農場을 不二興業會社의 傘下에 두면서 經營을 하였던 것이다.

東洋拓殖株式會社, 朝鮮興業(瀋澤財閥系), 東山農場(三菱財閥系) 등이 既存의 朝鮮人의 土地를 買收 또는 開拓한데 대하여 不二興業會社는 干拓과 開墾 특히 水利事業에 의해 農土를 擴張하고 農場을 전설하였다.⁴⁾ 이와같이 農地獲得方法에는 相違點도 있었으나 이들 日本人農場은 모두가 日帝權力を 背景으로 한 強權과 壓力으로 農場을 經營하고 있었던 것이다. 一例를 보면 1930년에 不二農場에서는 남몰래 숨어서 退村하는 者가 속출하였기 때문에 「農村의 氣風을 刷新한다」⁵⁾는 名目으로 新義州憲兵隊長 茅野正夫를 데리고 와서 武斷政治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이었다.

藤井은 滅野시멘트의 社長 滅野總一郎(日帝의 시멘트王)과도 緣故關係가 있었다. 兩者の 事業上의 關聯은 明示하기가 어려우나, 滅野가 시멘트業에서 朝鮮에서 大活躍을 했다는 점으로 미루어 兩者が 전혀 無關係였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藤井은 1931年에 第一線에서 隱退하지만 水利王으로서의 그의 地位는 不朽의 것이었다.

藤井寬太郎은 日本農民의 朝鮮移住에 적극적으로 活動하였을 뿐더러 日本人의 滿州移住도 주장하였다. 그의 案은 후에 日帝의 國策으로서 採擇되었다. 또한 藤井은 日帝의 產米增殖計劃에 적극 協力함으로써 日帝侵略政策의 一翼을 擔當하였던 것이다. 藤井은 日本農民侵略의 先鋒者이었던 것이다.

藤井寬太郎이 設立한 不二興業會社는 나중에는 「朝鮮開拓」(舊名 鮮滿開拓)과 함께 朝鮮殖產銀行系의 「成業社」의 傘下에 吸收되지마는 그들이 회득한 農土는 廣大한 規模에 이른다. 이에 의해 朝鮮農民은 심한 收奪을 당하였던 것이다. 成業社는 解放이후에는 韓國殖產銀行의 傘下會社로서 存續하였으나 1965年 10月 5일에 解散되었다.

不二興業會社를 비롯한 日本人 地主들의 水利事業을 통한 農民착취에 대하여 朝鮮農民은 명렬한 反對運動을 전개하였다. 특히 水利事業費負擔과 小作料引上은 農民의 貧困을 加速的으로

3) 猪原とし子, 『嘗の隣邦朝鮮の事とも』 참조. (筆者인 猪原とし子는 不二興業會社社長 藤井寬太郎의 딸이며, 이 책자는 韓國에서의 追憶을 記錄한 것이다).

4) 中川龜三, 『朝鮮殖產街史』, 1938, p. 64 참조.

5) 田中麗水編, 『全鮮商工會議所發達史』 참조.

擴大시켜 갔다. 農民들은 「小作人組合」, 「農民組合」 등 農民自身의 組織을 形成하여 反對運動(小作爭議 등)을 전개하여 抵抗하였으나 심한 彈壓을 받았다. 이 러한 彈壓 속에서도 農民의 反對運動은 계속 되었다.

本稿에서는 日本人地主의 形成 특히 藤井寛太郎의 不二興業會社의 生成·發展 및 成業社에 의한 吸收로부터 成業社의 生成 및 解散까지를 검토하며, 동시에 不二興業會社 傘下의 各水利組合(臨益水利組合, 益沃水利組合, 大正水利組合, 中央水利組合 등)과 그 農場에 있어서의 農民收奪關係를 살펴볼 것이며, 또한 거기에 있어서의 農民(小作人 등 貧農)의 反對運動을 살펴보자 한다.

이 方面의 研究는 日帝時代의 우리나라 社會經濟史研究에 있어서 看過할 수 없는 問題의 하나인 것이다. 다만 本稿에서는 不二興業會社와 그 傘下의 水利組合을 中心으로 韓國農民收奪의 研究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農民의 日本人地主에 대한 反對運動——小作爭議에 대한 分析이 충분하지 못하다. 紙面의 制約도 있어 後者の 研究는 다음 機會에 미루어 볼가 한다. 本稿의 未備한 점도 그때 補完하려 한다.

II. 日本人地主形成과 不二興業會社

朝鮮에 있어서의 日本人의 土地收奪 및 地主化는 1876년의 開港 이후 1910년의 韓日合併까지에 이미 상당히 進行되어 있었다. <表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30町步 이상의 土地(既開墾地·未開墾地包含)를 所有하고 있는 日本人地主는 1903년에 있어서 이미 13名이 있었고, 이것이 1909년에는 135名까지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04년의 「韓日議定書」締結, 1905년의 統監府設置 이후 그 數는 급증하고 있다. 즉 1904년에서 1909년의 4年間에 109名의 日本人이 地主化하였다.⁶⁾ 1908년에 이미 914町步의 土地를 所有하게 된 不二興業會社(1904年 設立)도 이에 包含된다.⁷⁾ 1909年 6月 現在 日本人地主 135名 중 85名이 100町步 이상의 大地主이었던 것이다.

1910년의 韓日合併과 그 후의 「土地調查事業」(1912年 8月~1918年 11月) 過程을 통하여⁸⁾ 日

6) 1907年 現在 30町步 이상의 日本人土地所有者는 團體를 包含하여 124名이었는데 그 중 東山農場·朝鮮實業株式會社·進永村井農場·鎌田產業株式會社 등이 首位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다. (田中喜男, 「明治後期」「朝鮮拓殖」「への地方的關心」——石川縣農事株式會社의 設立を通じて——朝鮮史研究會編, 『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四集), 東京, 極東書店, p. 130)

7) 浅田喬二, 『日本帝國主義と舊植民地地主制』, 御茶の水書房, 1968, pp. 280~281, 附表 3.3 참조.

8) 「土地調查事業」이 끝난 1918年 現在 畜의 64.6%, 田의 42.6%는 小作地로 되었으며, 自作農이 19.7%, 自作兼小作農과 小作農을 합하면 77.2%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블과 3.4%의 地主가 耕作地의 50.3%를 所有하게 되었다(朴慶植, 『日本帝國主義の朝鮮支配』(上) 青木書店, 1973, p. 69 참조). 한편 土地調查事業의 결과 李王家の 帝室財產에 屬하고 있던 土地는 그一部만 李王家財產으로 남겨 두고 그大部分과 驛屯田, 森林, 原野는 國有地로 編入되었다가 다시 拂下의 形式으로 日人會社 및 日人農場에 흡수되었다. 1921年 東洋拓殖會社(東拓)가 所有하게 된 土地만 하더라도 99,480町步에 달했다. 이

4 産業研究

(表 1) 30町歩以上 日本人地主의 土地所有規模 및 戸數推移 (單位: 戶)

	1903年以前	1904	1905	1906	1907	1908	1909	計
30~50町歩	1	4	3	2	3	7	—	20
50~100	3	6	7	4	7	3	—	30
100~200	2	5	5	12	6	—	1	31
200~300	3	5	2	2	—	—	—	12
300~500	2	2	5	10	2	—	—	21
500~1,000	1	3	1	3	3	1	—	12
1,000~2,000	—	1	1	1	—	—	—	2
2,000~5,000	1	—	1	—	—	1	—	2
5,000町歩~	—	1	—	—	—	—	—	—
計	13	27	25	34	23	12	1	135

備考: ① 1909年 6月末 現在의 數字임.

② 所有規模가 確實한 地主만의 集計임.

資料: 浅田喬二, 『日本帝國主義と舊植民地地主制』, 御茶の水書房, 1968年 p. 68; 統監府『第三次統監府統計年報』, 1910年 247~256에서 발췌.

(表 2) 日本人 農事 經營規模

年 度	經營者數	投資額	畠	田	山 林	原 野	기 타	合 計 (全所有面積)	地主 1人 當所有面積	畠田面積 의 全所有面積에 대 한 比率
1909	名 692	千円 7,906	(既開墾地) 42,880	町步 26,727	13,867	—	町步 9,556	町步 52,436	町步 75.8	81.8
1910	2,254	13,737	42,584	42,584	35,337	10,278	8,918	3,773	86,952	38.6 79.7
1911	3,839	12,473	57,004	57,004	39,605	8,254	9,407	13,537	126,146	32.9 74.0
1912	4,938	29,662	68,376	68,376	60,403	17,870	6,415	5,156	130,800	26.5 82.6
1913	5,916	36,771	89,624	89,624	63,517	19,414	9,213	9,933	184,245	31.1 82.0
1914	6,049	38,820	96,345	96,345	62,311	17,499	8,958	9,446	197,934	32.7 80.8
1915	6,969	45,587	108,742	108,742	—	—	—	8,027	205,538	29.5 83.2

資料: 朝鮮農會, 『朝鮮農業發達史』(發達篇), 1944年 pp.591~592, 朴慶植, 『日本帝國主義의 朝鮮支配』(上), 青木書店, 1973, p.73, 浅田喬二, 『日本帝國主義と舊植民地地主制』お茶の水書房, 1968, p. 78등에서 발췌함.

帝의 土地收奪은 급증하여 갔으며 이에 따라 日本人地主 내지 日本人農事經營者數는 급증하여 갔다. 즉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日本人農事經營者數는 1909년의 692名에서 1915년에는 6,965名으로 10倍이상의 증가를 보였으며 그 所有面積도 同期間에 5萬 2千町步에서 20萬 6千町步로 증가하고 있다. 投資額도 約 800萬円에서 4,600萬円으로 6倍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日本人地主의 土地收奪은 급증하여 갔으며 이에 따라 日本人地主 내지 日本人農事經營者數는 급증하여 갔다. 즉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日本人農事經營者數는 1909년의 692名에서 1915년에는 6,965名으로 10倍이상의 증가를 보였으며 그 所有面積도 同期間에 5萬 2千町步에서 20萬 6千町步로 증가하고 있다. 投資額도 約 800萬円에서 4,600萬円으로 6倍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日本人地主의 土地收奪은 급증하여 갔으며 이에 따라 日本人地主 내지 日本人農事經營者數는 급증하여 갔다. 즉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日本人農事經營者數는 1909년의 692名에서 1915년에는 6,965Name: 表2_1909-1915.csv

畠에도 富士, 興業, 片倉, 東山, 藤井 등 大日人農場에서 所有하게 된 土地도 莫大한 面積에 달했다. 특히 森林은 全面積의 58%는 日本人의 所有로 集中되어 있었다고 한다. (趙璣濬, 『韓國經濟史』, 新社, 1981(改正版), p.306)

主가 所有하는 全所有面積의 83.2%는 畠田(논과 밭)이었다. 한편 日本人地主 1人當의 所有面積은 1909年の 75.8町步에서 1915年에는 29.5町步로 40%가 減少하고 있는데, 이는 韓日合併 이전에 來韓한 日本人地主의 大部分이 廣大한 土地를 取得하여 地主化한데 대해 韓日合併 이후에 來韓한 日本人地主의 大部分이 中小土地所有者였었기 때문⁹⁾인 것이다.

1922年에서 1929年까지의 日本人大地主의 土地所有動向을 보면 30町步 이상의 耕作地所有地主는 同期間에 143戶, 86,780町步에서 470戶, 133,712町步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1,000町步이상의 日本人地主도 1922年 27戶, 1929年 28戶에 달하고 있다.¹⁰⁾

〈表 3〉 民族別 大地主比較 (1932年)

	50~100町步	100~500町步	500町步以上
朝鮮人	1,454戶	756戶	43戶
日本人	269	244	64

資料：朝鮮總督府，『小作ニ關スル參考事項摘要』，1934年 pp. 64~65.

〈表 4〉 民族別 土地所有面積比較 (単位：町步)

	1918		1930 (30町步以上 所有者)	
	朝鮮人	日本人	日本人	朝鮮人
京畿道	368,948	18,492	16,014	53,786
忠清北道	158,726	3,503	1,617	8,678
忠清南道	231,038	19,672	15,080	31,754
全羅北道	192,103	51,434	43,154	29,482
全羅南道	361,501	49,357	45,545	43,753
慶尙北道	383,234	14,152	9,185	16,130
慶尙南道	272,849	23,218	19,600	34,055
黃海道	512,957	34,795	40,478	42,634
平安南道	411,033	7,839	4,932	34,107
平安北道	391,872	2,899	7,695	22,610
江原道	321,857	6,022	8,666	12,184
咸鏡南道	354,523	4,482	3,187	9,473
咸鏡北道	221,787	721	1,503	2,324
計	4,182,428	236,586	216,704	340,970

備考：① 日本人所有土地는 90%가 肥沃하고 生産性이 높은 地域에 存在한다.

② 1930年은 30町步以上의 朝鮮人地主와 日本人地主의 比較임.

資料：1918年은『官報』1919年 11月 29日. 朴慶植, 前揭書, p. 73; 1930年은 淺田喬二, 前揭書 pp. 34~35.

9) 淺田喬二, 前揭書, p. 77 참조.

10) 淺田喬二, 上書 p. 79 第 3·6表 참조: 더욱 1920年 現在 北海道를 포함한 日本全國에서 1,000町步 이상의 地主는 22戶였다(同 p. 77). 이러한 事實은 韓國에 있어서의 日本人地主의 土地收奪이 얼마나 심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表 5〉 30町歩以上 日本人地主의 地域別戸數 및 耕地面積推移 (単位: 戸・町歩)

	1922年		1925年		1929年		1931年	
	戸數	面積	戸數	面積	戸數	面積	戸數	面積
京畿道	19	8,107.8	35	7,527.0	33	8,282.8	29	8,368
忠清北道	2	525.3	3	320.2	2	375.9	3	475
忠清南道	23	6,616.2	65	7,909.4	30	5,889.3	24	7,812
全羅北道	30	20,617.9	66	26,566.1	98	32,027.4	64	32,439
全羅南道	24	18,871.0	182	33,308.7	158	34,967.4	73	30,560
慶尙北道	4	1,698.6	30	3,896.2	4	1,872.8	11	2,747
慶尙南道	11	4,212.9	34	9,207.1	33	5,669.3	27	9,463
黃海道	12	17,434.7	41	19,432.7	48	29,111.0	30	23,613
江原道	6	3,912.0	8	2,432.0	27	7,804.8	10	6,903
平安南道	7	2,973.2	5	1,255.9	15	1,744.9	8	1,962
平安北道	3	1,507.9	6	5,692.1	6	5,140.7	10	6,420
咸鏡南道	1	32.9	3	106.6	15	762.1	5	622
咸鏡北道	1	270.0	—	—	1	58.3	4	642
計	143	86,780.4	478	117,654.0	470	133,721.7	298	132,026

備考: ① 東洋拓殖會社 除外함.

② 1931年은 100町步以上의 日本人地主의 數字임.

資料: 淺田喬二, 『日本帝國主義と殖民地地主制』(前掲書) p. 80.

참고로 朝鮮人地主와 日本人地主를 比較하면 1932年 現在 500町步 이상의 大地主는 朝鮮人地主 43戶에 대해 日本人地主는 64戶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表 3 참조). 이는 日本人地主가 朝鮮人地主보다 大地主化(大規模土地所有者)되어 간 것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 것은 同時に 日本人의 土地收奪이 強化되어 갔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日本人大地主의 進出地帶는 朝鮮의 穀倉地帶인 全羅南道, 全羅北道, 京畿道, 忠淸南道 및 黃海道 등이었다. 이 중에서도 日本人地主의 密集地帶는 奋農事의 中心地帶인 全羅南道·全羅北道와 耒(田)農事의 中心地帶인 黃海道이었다(表 4·表 5 참조).

「全羅北道 沢溝平野의 土地는 그 모두가 日本人의 것이요, 朝鮮人の 所有土地는 찾아 보기 힘들었던 것이다.」¹¹⁾는 말도 결코 과장된 말만은 아닌 것이다. 不二興業會社의 所有土地(1925年) 忠淸南道論山郡, 全羅北道全州·益山·金堤·井邑·澤溝郡, 黃海道海州郡, 平安北道龍川郡, 江原道鐵原郡에 7,911町步 存在하고 있다.¹²⁾ 즉 不二興業會社는 朝鮮에 있어서의 奋農事의 中心地帶와 田農事의 中心地帶에 進出하여 朝鮮人の 土地를 收奪하여 갔 것이다.

1918年頃의 統計이지만 日本人地主의 土地利益은 莫大한 것이었다. 즉 그 利益이 높은 곳에서는 25.86%(群山地方)나 되며一般的으로는 10~20%이었다. 이것은 日本에 있어서의 土地利

11) 文定昌, 『日本軍國 朝鮮 占領三十六年史』(上), 1965, p. 391

12) 淺田喬二, 前掲書, pp. 274~289 附表 참조(本論文 末尾의 附表 참조 바람).

〈表 6〉 不二興業會社의 土地所有面積・土地所在地
(單位:町步)

地目別		1908	1915	1922	1925	1929	1931
土地面積	畠	612	1,308.0	1,623.5	5,740.3	8,792.0	8,894
	田	59	149.0	2,544.8	1,916.0	1,133.8	1,576
	기타	243	925.0	335.5	255.2	445.9	331
	計	914	2,382.0	4,503.8	7,911.5	10,371.7	10,801
上地所在地		全羅北道, 沃溝郡, 臨陂郡, 益山郡, 기타北道	忠清南道, 全羅北道, 平安郡, 全羅北道各郡	忠清南道論山郡, 全羅北道論山郡, 全羅北道全州, 全羅北道益山郡, 全羅北道扶安·高敞·全州·益山·沃溝郡, 黄海道, 海州郡, 沃溝郡, 黄海道, 平安北道, 龍川郡, 海州郡, 平安北道江原道鐵原郡, 龍川郡, 江原道鐵原郡	忠清南道論山郡, 全羅北道扶安·高敞·全州·益山·沃溝·金堤·井邑黃海道海州郡, 平安北道龍川郡, 沃溝·金堤·井邑郡, 平安北道龍川郡, 江原道鐵原郡	忠清南道論山郡, 全羅北道扶安·高敞·全州·益山·沃溝·金堤·井邑郡, 平安北道龍川郡, 江原道鐵原郡	忠清南道論山郡, 全羅北道扶安·高敞·全州·益山·沃溝·金堤·井邑郡, 平安北道龍川郡, 江原道鐵原郡

資料：淺田喬二, 『日本帝國主義と舊植民地地主制』, 御茶の水書房, 1968, pp. 280~281, 附表 3.3에서 발췌함.

益의 2~3倍가 되는 것이었다. 그것은 高率의 小作料收奪과 低地價에 기인하는 것이었다.¹³⁾

不二興業會社(藤井寛太郎)의 年度別 土地所有面積 및 土地所在地를 나타낸 것이 〈表 6〉이다. 同表에 의하면 不二興業會社의 土地所有面積이 가장 많았던 1929년에 있어서 畠은 8,792町步, 田은 1,133町步, 기타 446町步 計 10,317町步에 달하고 있으며 그 土地所在地는 全羅北道, 忠清南道, 黄海道, 平安北道, 江原道 등 全國의 主要農業地帶에 걸치고 있다.

不二興業會社는 日帝下 朝鮮에 있어서의 日本人巨大農場의 代表의인 것의 하나이었으며, 또한 同會社의 朝鮮人小作人에 대한 치취·압박은 가장 惡質의인 植民地의 收奪狀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朝鮮內 日本人地主중 가장 惡質의인 者는 東拓·不二興業·態本利平」¹⁴⁾ 등이었던 것이다.¹⁵⁾ 1929年 5月의 「東亞日報」에 의하면 「平安北道 龍川郡 所在 不二興業株式會社는 小作人을 使用하여 土地를 干拓한 다음, 그 小作人을 쫓아내기 시작하였으므로 小作人 2,000餘名이 代表者 150名을 選拔하여 龍川郡守에게 「不二興業이 自作한다고 農土를 빼앗으려 하니, 從前과 같이 小作人們이 耕作하게 해 주거나, 不然이면 그 土地를 干拓한 費用, 즉 勞賃을 支拂반도록 해달라」고 陳情하였다…….」¹⁶⁾ 또한 1930年 10月의 「東亞日報」記事에 의하면 「不

13) 朴慶植, 前揭書, p. 74 참조.

14) 態本利平은 朝鮮內日本人大地主의 代表의인 者의 하나이었다. 態本은 日本長崎縣壹岐의 出身이며, 『群山開港史』에 의하면 態本은 1904년에 現金 3千円을 가지고 群山에 와서 朝鮮에서의 生活을 시작하였고, 1912年頃부터 大地主가 되었다고 한다. 態本은 全羅北道에 있어서의 日本人巨大地主이었다. 그는 일찍 朝鮮에서 地主화한 다른 日本人地主처럼 全羅北道의 穀倉地帶인 全州·金堤·益山·沃溝·井邑 등에서 畠의 大所有者가 되었다. 그의 所有耕地는 1908년에는 1,580町步(이중 畠 1,500町步)에 달하였고, 1925년에는 2,978町步(畠 2,626町步), 1931년에는 2,965町步(畠 2,721町步)까지 급증하였다. 熊本農場은 畠中心의 小作制巨大農場이 되었던 것이다. (淺田喬二, 前揭書, p. 124, p. 126참조).

15) 文定昌, 前揭書, (中), 1966, p. 382.

16) 『東亞日報』, 1929年 5月 12日字.

二興業農場이 無慈悲하게 小作權을 剝奪하였으므로, 府羅面中瑞里 部落民들이 斷食不耕同盟으로써 闘爭을 開始하니 警察이 宋聖燁等 16名을 逮捕 拘禁하였다. ……平北 龍川郡 不二興業農場小作料를 警察이 出動하여 強制로 徵收하고 있다. ……」¹⁷⁾는 것이다. 이러한記事는 不二興業會社가 朝鮮人 小作人에 대하여 惡質의 植民地的 收奪과 壓迫을 자행해 온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III. 不二興業會社와 水利組合

1. 益沃水利組合과 藤井寛太郎

水利組合이 比較的 일찌기 設立되고 그 영향도 일찌기 나타난 것은 全羅北道에 있어서이다. 不二興業會社의 臨益水利組合, 益沃水利組合은 全羅北道에 存在하고 있다.

1926年 10月 27日字의 『東亞日報』는 「水利組合은 土地兼併을 促進——小地主負擔過重으로 轉賣」라는 題目으로 全羅北道에 있어서의 土地兼併傾向을 報道하고 있다. 또한 同年 10月 31日字 『東亞日報』記事는 「水利組合內의 土地移動狀況——朝鮮人放資하고 日本人兼併」이라는 題目으로 全羅北道에 있어서의 土地所有의 變化를 報道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朝鮮人 小地主는 組合費의 過重과 地價高騰으로 放賣하는 傾向이 현저하다」는 것이다.¹⁸⁾ 이리하여 朝鮮人 小地主의 土地는 日本人地主의 수중에 集中(土地集中)되어 간 것이었다. 土地集中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 것은 不二興業會社 산하의 水利組合에 있어서였다. 즉 〈表 7〉에서 볼 수 있듯이 全羅北道에 있어서의 每 1人當 面積은 1920年에서 1925年까지에 不二興業會社의 臨益水利組合과 益沃水利組合에서 현저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表 7〉

全羅北道에 있어서의 每 1人當面積推移

水利組合	年度	1920	1925	增 減
沃	溝	2.23(反)	1.81	△0.42
臨	益	4.46	6.16	1.70
全	益	6.76	6.72	△0.04
古	阜	3.27	3.82	0.55
益	沃	3.56	5.72	2.16
平	均	3.73	4.70	0.97

資料: 『東亞日報』, 1926年 10月 27日

17) 『東亞日報』, 1930年 10月 30日字.

18) 『東亞日報』, 1926年 10月 27日字: 同年 10月 31日字: 西條晃, 「1920年代 朝鮮における水利組合 反対運動」, 朝鮮史研究會編, 『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八集), 1973年 3月, p. 111 参照.

앞서 論한 바와 같이 不二興業會社를 設立한 것은 藤井寬太郎이다. 藤井은 臨益水利組合의 設立을 계기로 水利組合方面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 「水利組合史의 第一面을 장식하는 것은 藤井寬太郎과 全北 臨益水利組合이다」¹⁹⁾라고 하는 정도로 藤井寬太郎은 臨益에 있어서의 水利事業으로 成功한 것이다. 藤井이 水利組合을 設立하게 된 動機는 韓末의 韓國政府財政顧問이었던 目賀田種太郎의 권유에 의한 것이라는 說도 있으나²⁰⁾ 하여튼 藤井이 이 方面의 第一人者이었던 점은 사실인 것 같다. 藤井이 그 出發에 있어서 目賀田財政顧問과 密接한 관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朝鮮殖產銀行의 設立 후에는 同銀行의 적극적인 財政支援을 받았던 것이다. 즉 藤井은 日帝의 權力과 金權을 背景으로 「水利王」이 된 것이다.

1909년의 臨益水利組合의 設立認可直前에 沃溝西部水利組合이 認可되었으나 同組合은 既設組合을 公認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藤井의 臨益水利組合이야 말로 新水利施設로서 新出發을 한 최초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朝鮮殖產銀行設立 이전의 일이었다. 朝鮮殖產銀行設立 후에 同殖產銀行이 최초로 水利組合에 관여한 것은 1920年 6月에 益沃水利組合에 647萬 9千圓을 貸出하였을 때부터이다.²¹⁾ 이후 朝鮮殖產銀行과 藤井의 관계는 밀접하게 되는 것이다.

益沃水利組合은 臨益西部水利組合과 沃溝水利組合 및 錦江河口의 不二干拓地 2千町步를 合하여 1909年に 設立(益沃水利는 1923年 6月에 竣工)된 것으로서 朝鮮殖產銀行이 資金貸出을 하기 이전에 이미 東洋拓殖株式會社(東拓)로부터 40萬圓을 借入(元利金을 合하면 58萬 9千圓을 借金)하고 있었는데 1920年 3月의 不景氣로 東拓이 水利組合金融을 中斷하려고 하자同年 6月에 朝鮮殖產銀行이 益沃水利組合에 647萬圓의 融資를 하고 東拓의 58萬圓의 債權도 引受한 것이다.

이리하여 益沃水利는 1923年 6月에 竣工直時 通水하여 灌溉用水을 供給하였는데, 翌年の 1924年에는 全北一帶에 大旱害가 急襲하였는데, 이 때의 益沃水利組合區域內와 地域外의 收穫의 差異는 約 500萬圓(당시 粖는 一石 17圓이며 그 換算價格임)에 달해 同水利組合은 1個年으로 이미 工事費를 초과한 수확을 올렸다고 한다.

당시 朝鮮總督府 政務總監으로서 下岡忠治가 赴任했는(1924年 7月), 同總監의 유명한 產米增殖計劃은 이 益沃의 事業實績을 參酌한 것이라고 한다.²²⁾ 이와같이 藤井의 益沃事業은 日帝의 產米增殖計劃의 樹立에 대하여 直接, 間接으로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藤井이 農民收奪의 先鋒에 선 근거는 이러한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여튼 同年(1924年)부터는 朝鮮各地에서도 水利組合이 組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藤井寬太郎과 朝鮮殖產銀行와의 관계는 大正水利組合의 경우에도 볼 수 있다. 즉, 藤井寬太

19) 中川龜三, 前揭書, p. 36.

20) 同上

21) 同上

22) 同上, p. 37 참조.

郎은 上記의 益沃水利組合의 設立에 이어 平北에 7千町步의 大正水利組合을 設立하기 위해 1916년에 당시의 總督 寺內正毅의 암선으로 東拓總裁 宇佐川一正大將으로부터 130萬圓의 資金을 融資받아 同水利組合의 工事에 착수하여 점차 이 大正水利組合을 확장하여 1萬 2千町, 工事費 577萬圓의 大水利組合으로 成長시켰다. 한편 1920年的 不景氣때는 東拓에서 朝鮮殖產銀行이 그 債權을 引受하여 大正水利組合을 支援했다고 한다. 藤井이 水利事業에 成功한 것은 朝鮮殖產銀行의 絶대적 지원에 의해서였던 것이다. 益沃水利組合, 大正水利組合은 藤井이 設立한 不二興業會社傘下의 水利組合인 것이다.

2. 不二興業會社와 藤井寬太郎

不二興業會社(資本金 400萬圓 全額拂込)는 1904년에 藤井寬太郎이 設立한 會社로서 그 所有地 8千町步(畠 全北 1,000町步, 平北 4,127町步, 江原 3,346町步, 黃海 214町步)는 그 半數以上이 干拓地이었다.²³⁾ 日本大阪의 商人出身인 藤井寬太郎이 設立한 不二興業會社는 堂島(大阪)의 米穀商人이었던 藤本合資會社의 事業을 引繼한 것이었다. 藤井寬太郎은 大阪의 巨商, 海運業關係者의 資本援助를 토대로 하여 朝鮮에 있어서의 代表적인 日本人 巨大地主의 한사람이 되었다.²⁴⁾ 그의 所有耕地面積은 1925年 7,911町步, 1931年 1萬 800町步(이 중 畠 9千町步)에 달하였다. 大阪의 巨商, 海運業關係者들이 朝鮮에서 廣大한 土地의 所有者(大地主化)가 되고, 小作制大農場을 開設할 수 있도록 引導한 것은 藤井寬太郎이었다.²⁵⁾ 「藤井寬太郎은 大阪의 巨商, 海運業關係者들이 朝鮮에서 廣大한 土地를 取得하여 地主化하기 위한 導管으로서의 役割을 하였던 것이다.」²⁶⁾ 다시 말해서 大阪出身의 巨商들은 처음에는 朝鮮에서 購入한 土地를 直接 小作制農場으로서 經營한 것이 아니고 一定期間(農場收益이 確實한 때까지) 不二興業會社에 맡겨 委託經營을 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土地投資가 「採算, 確實, 將來性」에 있어서 有利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때부터 地主化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地主化한 것은 1911年(明治末)頃이었다.²⁷⁾ 이들 巨商들은, 당시 朝鮮에서 地主가 된 대부분의 日本人地主의 경우와 같이 全羅北道, 全羅南道의 畠中心地帶의 耕地를 購入・所有하였다.²⁸⁾

23) 同上, p. 59 참조.

24) 淺田喬二, 前揭書, p. 128 참조.

25) 여기에서 大阪의 巨商이라고 하는 것은 阿部市郎兵衛, 阿部市太郎, 八木正治 등을 말하며(藤井寬太郎도 이들에 포함된다), 이들 商人們은 원래 衣服판례의 商人이었기 때문에 縹布販賣를 위해 일찍부터 朝鮮에 進出하여 와서 土地를 購入하여 地主가 되었다. 즉 商人兼地主이었다. 그것은 藤井寬太郎의 引導에 의한 것이다. 그들이 本格的인 地主가 된 것은 1911年(明治末期)頃이었다. (淺田喬二, 上書, p. 128 참조).

26) 淺田喬二, 上書, p. 128.

27) 同上, pp. 128~130 참조.

28) 淺田喬二, 上書, p. 128. 大阪商人 阿部市郎兵衛는 1911年に 地主(商人兼地主)가 되었으며 1925년에는 全羅南道 靈光, 海南郡에 1,690町步의 耕地를 所有하였다. 阿部市太郎은 1912년에 地主化하였고 1925

不二興業會社는 朝鮮殖產銀行의 傍系會社이지만 그러나 事實上은 傍系會社라는 線을 넘어서 不二興業會社와 朝鮮殖產銀行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당시 朝鮮殖產銀行의 頭取이었던 有賀光豊이 朝鮮總督府의 產米增殖計劃에 남달리 热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에 呼應하여 實제로 產米增殖計劃을 實踐한 것이 不二興業社長 藤井寛太郎이었기 때문에 兩者の 관계를 통해 朝鮮殖產銀行과 不二興業會社의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즉 朝鮮殖產銀行이 資金을 提供하고 不二興業會社가 이를 武器로 土地를 干拓 내지 開墾한 것이다. 「水利事業王 藤井寛太郎과 產米增殖에 沒頭하고 있던 有賀殖銀頭取는……마치 產米增殖計劃의 兩翼이 되어, 그 樞軸으로 되었는데, 其間 殖產銀行은 드디어 不二興業에 대해 1千 2百萬圓(이 중 4百萬圓은 殖銀引受社債)이라는 巨額의 貸付²⁹⁾를 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한때 「不二興業이」 드디어 殖銀을 倒産」시킬 것이라는 소문까지 난 정도이다.³⁰⁾

특히 不二興業會社는 1930~31年에 經營上 어려운 時期를 맞이하였으나 朝鮮殖產銀行의 支援으로 이를 무난히 克服한 것이다. 그것은 비단 有賀와 藤井의 個人關係에서 뿐만 아니라 당시 總督府施策의 重要課題의 하나가 產米增殖運動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호응한 不二興業會社를 적극 支援한 것이다. 또한 「이 不二興業이……更生을 보기까지에는 그 최대의 難問題였던 鐵原의 中央水利가 更生水利組合聯合會(不良水利組合의 集團)의 成立과……당시 土地改良課長(후에 總督府의 人事課長)이었던 確井忠平이 全智를 기울인 斯라이딩 스케일의 組合費 收去法에 의한 組合費의 輕減, 혹은……全北沃溝郡에 있어서의 干拓地의 內地人(日本人)移民團 320戶(全北의 약 3千町步의 (耕地)一部를 日本人移住者에게 讓度함)의 整理에 있어서 總督府가 援助를 하였다는 등의 外部的原因」³¹⁾도 있어 不二興業會社의 基礎도 튼튼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不二興業會社는 總督府의 政治的 保護와 支援을 받았던 것이다. 이리하여 「同社所有의 不毛의 地, 혹은 干拓地」³²⁾도 沃土로 變化하고 增收率도 높아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不二興業會社의 奉下水利組合에 있어서는 水利事業費負擔을 農民(小作人)에게 轉嫁하고 小作料를 5割에서 6割로 引上하는 등 가혹한 農民收奪을 서슴치 않고 행하였던 것이다(後述). 그것이 너무 가혹하였기 때문에 農民의 反對運動(小作爭議)이 자주 일어났던 것이다.

不二興業會社의 奉下에는 臨益水利組合과 不二全北農場, 益沃水利組合과 不二沃溝農場, 大正水利組合과 不二西鮮農場, 中央水利組合과 不二鐵原農場등이 있었다.

藤井寛太郎은 한때 「朝鮮의 水利事業王」으로서 朝鮮內는 물론 日本本土의 要路에 까지 그 이

年에는 全羅北道 金堤, 扶安, 井邑郡에 826町步의 耕地를 所有하였다. 八木正治는 1920년에 地主化하였고 1929년에는 全羅北道 沃溝郡에 991町步의 耕地를 所有하는 地主가 되었다. (淺田喬二, 上書, pp. 274~289 附表 참조 : 本論文末尾의 附表 참조).

29) 中川龜三, 前揭書, p. 60.

30) 同上, p. 60.

31) 同上, p. 62.

32) 同上, p. 63.

름이 알려진 것이다.³³⁾

藤井이 1931년에 不二興業會社의 社長職으로부터 隱退하자 「藤井寛太郎과一心同體와 같았던澤村九平」³⁴⁾이 그 뒤를 이었다. 澤村은 總督府의 勅任技師에서 退任하여 不二興業會社의 社長이 되어 同社를 더욱 發展시켰다.

그후 不二興業會社는 朝鮮開拓과 함께 成業社의 傘下에 들어 갔다. 成業社는 朝鮮殖產銀行의 「固定貸出整理會社」인 것이다.

朝鮮開拓(舊名 鮮滿開拓, 資本金 4百萬圓)은 黃海道에 약 4千町步의 干拓地를 經營하는 會社로서 1931년에 川上佐太郎外의 大株主의 希望에 의해 株式의 全部를 成業社에 引繼하였던 것이다.³⁵⁾

당시 이론바 日本財閥系의 農場(會社)으로서는 滾澤系(濫澤榮一系)의 朝鮮興業會社, 三菱(三菱財閥系)의 東山農事會社, 大倉系의 大倉農場 등이 있었으며, 이 외에도 國策會社인 東洋拓殖會社 등이 있었다. 이들에 대하여는 이 論文末尾의 附表을 참조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說明은 생략하겠다.³⁶⁾

朝鮮興業會社, 東山農事會社 및 東拓 등에 있어서는 投資의 安全을 第一目標로 하여 沃土美田을 買入하였다. 이에 대해 不二興業會社는 干拓 및 開墾에 주력하여 前者와 對照的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³⁷⁾ 그러나 이들 日本人大地主會社 내지 農場에 있어서의 農民收奪은 그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가혹하지 않는 것은 없었다. 그 중에서도 不二興業會社에 의한 農民收奪은 가장 가혹한 것이었다. 특히 「米價暴落, 農村不況時에는 不二의 暴舉는 各 方面의 惡罵」을 받았던 것이다.³⁸⁾ 朝鮮興業과 東山農事會社의 경우는 기존의 沃土를 買收하여 小作料를 收納하고 있었으나 그들 역시 심한 착취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東拓의 收奪은 이미 周知의 事實이 되어 있다.

不二興業會社는 日帝의 政策에 호응하여 「朝鮮의 產米增殖」에 多大한 貢獻을 함으로써 中日戰爭때 日帝侵略者の 食糧供給의 一翼을 擔當하였던 것이다.³⁹⁾ 藤井寛太郎은 실로 日帝의 武力과 金權을 배경으로 農民收奪을 하였으며 또한 日帝의 侵略行爲에 直接・間接으로 協力한 것이다. 그는 日帝農民侵略의 先峰의 役割을 한 것이다.

3. 不二興業會社와 水利組合

1920년에서 1930年代初까지의 朝鮮에 대한 日本의 農業政策은 「產米增殖計劃」으로서 代表할

33) 同上 참조.

34) 同上.

35) 同上 참조.

36) 이에 대한 具體的인 說明은 濱田喬二, 前揭書 pp. 114~145를 참고 바란다.

37) 中川龜三, 前揭書, p. 64 참조.

38) 同上 참조.

39) 同上, p. 65 참조.

수 있으며⁴⁰⁾, 그 「產米增殖計劃」은 水利組合을 中心으로 추진되었던 것이다. 水利組合事業은 1920년에 시작되어 1925년의 「更新計劃」에 의해 變更를 보면서도 1934년까지 계속되고 1937년 까지에는 看工中의 工事도 完了하고 終止符를 찍게 되었다. 「產米增殖計劃」이 中止된 1934년까지의 水利組合內의 作付面積은 12萬 1,485町步이며 이것은 總畠面積 160萬 8,888町步의 7.5%에 상당한다.⁴¹⁾ 米穀增收量은 水利組合內에 있어서 119萬 2,263石에 달하였다. (水利組合에 의하지 않는 增收量은 6萬 9,650石에 지나지 않았다.)

위와 같이 「產米增殖計劃」의 實現에 있어서 水利組合의 역할은 큰 것이었다. 지금 3,000町步以上의 이른바 大規模 水利組合의 경우를 보면 不二興業株式會社, 鮮滿開拓會社 등 日本人 大地主에 의해 設立된 水利組合이 대부분이며, 一部朝鮮人地主에 의해서도 水利組合이 設立되었다. 이러한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⁴²⁾

II. 不二興業株式會社設立水利組合

- ① 臨益水利組合, 全羅北道 沃溝郡·益山郡, 4,844町步 (1909年設立)
- ② 大正水利組合, 平安北道 龍川郡, 1萬 1,093町步, (1914年 設立)
- ③ 益沃水利組合, 全羅北道 益山·沃溝郡, 1萬 108町步 (1920年 設立)
- ④ 於雲水利組合, 江原道 平康·鐵原郡, 710町步 (1920年 設立)
- ⑤ 中央水利組合, 江原道 鐵原·平康郡他, 8,742町步 (1922年 設立)

III. 鮮滿開拓會社設立水利組合

- ① 延海水利組合, 黃海道 延白·海州郡, 1萬 813町步 (1925年 設立)
- ② 黃海水利組合, 黃海道 延白·海川郡, 1萬 3,324町步 (1929年 設立)

III. 其他 3,000町步以上의 大水利組合

- ① 東津水利組合, 全羅北道 金堤郡, 1萬 8,500町步, 1925年 設立(齊藤竹次郎)
- ② 安寧水利組合, 黃海道 截寧郡, 1萬 323町步, 1926年 設立(鄭讚裕)
- ③ 咸興水利組合, 咸鏡南道 咸州·定安郡, 1萬 20町步, 1925年 設立(金夏涉)
- ④ 平安水利組合, 平安南道 平原·大同郡, 5,174町步, 1926年 設立(李教植)
- ⑤ 古阜水利組合, 全羅北道 高敞郡, 4,323町步, 1916年 設立(窪田好助)
- ⑥ 同仁水利組合, 平安北道 定川·博川郡, 4,221町步, 1920年 設立(金起鴻)
- ⑦ 金浦水利組合, 京畿道 金浦郡, 3,977町步, 1930年 設立(芮宗錫)

40) 「產米增殖計劃」은 「土地改良事業」과 「農事改良事業」의 2개事業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同計劃의 中心課題는 「土地改良事業」이었다. 後者에 있어서는 水利·灌溉事業이 重要事業이었다. 특히 米穀耕作을 위해서는 水利·灌溉事業이 중요하였다. 이를 위해서 다음 3方法이 고려되었다. 즉, ① 水利灌溉設備를 改善하기 위한 水利事業 ② 田을 畔으로 變更하는 地目變更 ③ 國有未墾地의 開拓 또는 千潟地를 乾燥하여 畔으로 만드는 것 등이다. 이러한 「土地改良」은 個人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 水利組合에 의해서 행하여졌다. (西條晃, 「1920年代朝鮮における水利組合反對運動」, 朝鮮史研究會編, 『朝鮮史研究會論文集』, (第八集), 1973年 p. 17 참조).

41) 水利組合에 의하지 않는 作付面積은 9,512町步이었다. 즉 水利組合에 의한 것이 약 12萬 1千町步가 많은 것이다. ((日本) 農林省米穀局, 『朝鮮米關係資料』, 1936年 pp. 169~170 : 西條晃, 上揭論文, p. 107 참조).

42) 西條晃, 上揭論文, pp. 108~109.

- ⑧ 載信水利組合, 黃海道載寧·信州郡, 3,797町步, 1927年 設立(鄭健裕)
- ⑨ 富平水利組合, 京畿道 富川, 金浦郡, 3,676町步, 1923年 設立(半田善四郎)
- ⑩ 舒川水利組合, 忠清南道 舒川郡, 3,500町步, 1923年 設立(兼平虎一)

이에서 보이듯이 「水利組合事業의 先驅者」⁴³⁾로 불리는 藤井寛太郎의 不二興業株式會社 傘下의 水利組合이 가장 그 規模가 크다. 즉 5水利組合 合計 3萬 6,995町步를 소유하고 있다. 鮮滿開拓會社 設立의 水利組合은 2水利組合, 2萬 4,137町步를 소유하고 있다.

水利組合의 設立에 있어서는 朝鮮總督府, 日本政府, 東洋拓殖會社 및 朝鮮殖產銀行 등 日帝의 權力機關에서 各種 支援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1925년의 「產米增殖更新計劃」(第2期計劃)에 있어서는 土地改良事業의 總資金 3億 325萬円⁴⁴⁾(水利組合과 個人에 의한 水利事業合計價額) 中 日本政府의 大藏省預金部에서 東洋拓殖會社와 朝鮮殖產銀行을 통하여 9,900萬円을 貸付하였으며, 東洋拓殖會社와 朝鮮殖產銀行은 9,900萬円의 社債를 發行하여 貸付를 행하였으며, 또한 朝鮮總督府로부터 補助金 6,507萬円이 支給되고 水利組合의 經營者가 3,948萬円을 負擔하기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⁴⁵⁾

水利組合의 設立은 6割 이상의 借入金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 借入金에 대해서는 年 7分 4毛의 利子支給과 25年間에 걸친 年賦償還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借入金과 利子는 徵收된 水利組合費에서 支拂되기 때문에 水利組合事業은 朝鮮人農民의 負擔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⁶⁾ 1923年 2月 1日字『東亞日報』는 「水利組合管內의 朝鮮人の 土地는 低利資金의 利用을 통하여 組合所有 즉 日本人의 所有가 된다. 그 經過를 보면 대개 현저하게 많은 水稅負擔과 組合側의 計劃的 壓迫, 奸計에 의하여 貧弱한 朝鮮人 小地主는 生活을 할 수 없게 되어廉價로 投資하게 되는 것이다」고 그 論說(「水組의 紛爭」)에서 보도하고 있다.

水利組合을 통한 日本人地主 및 一部 朝鮮人地主의 土地集中, 水利組合內에 있어서의 水稅등 각종 農民負擔의 증가는 農民의 反抗과 鬪爭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요인인 되는 것이다(後述).

水利組合內에 있어서의 土地所有狀況을 보면 <表 8>와 같다. 同表에 의하면 불과 6.6%의 日本人이 總面積의 28.7%를 所有하고 있으며, 100町步 이상의 경우에는 0.1%의 日本人이 15.1%를 소유하고 있다.

1920年代에 있어서 朝鮮農村에서 현저하게 나타난 현상은 日本人과 一部朝鮮人大地主의 土地集中, 朝鮮中小地主·自營農의 没落, 貧農의 增加 등이었다. 이러한 傾向은 水利組合內에 있어서 가장 典型的으로 전개되었다.⁴⁷⁾ 不二興業會社가 設立한 水利組合은 그 代表的인 것이라고

43) 同上, p.108

44) 中央朝鮮協會, 『朝鮮產米の增殖計劃』, 1926年 pp. 32~33 참조.

45) 西條晃, 前揭論文, p.110 參조.

46) 同上.

47) 同上, p.111 參조.

<表 8>

水利組合內의 土地所有狀況

(1926年)

	日本 人		朝 鮮 人		合 計	
	人員數	面 積	人員數	面 積	人員數	面 積
5反步 未滿	1.8%	0.2%	46.1%	5.5%	48.1%	57.7%
1町步 未滿	1.2	0.4	22.0	7.7	23.3	8.2
10町步 未滿	2.9	4.9	23.3	27.7	26.5	33.0
50町步 未滿	0.5	5.2	1.2	11.1	1.8	17.4
100町步 未滿	0.1	2.9	0.1	2.2	0.2	5.9
100町步 以上	0.1	15.1	0.0	1.7	0.1	29.8
合 計	6.6	28.7	9	55.9	100	100

資料：印貞植，『朝鮮の農業機構』(増補版)，pp. 294～295 西條晃，前掲論文 p. 111.

할 수 있다.

IV. 不二興業會社의 農民收奪과 水利組合反對運動

水利組合에 대한 朝鮮農民의 反對運動 및 闘爭(小作闘爭)에 대하여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水利組合에 대한 反對運動은 1920년에 水利組合事業이 시작된 후 계속 일어났으며, 그것은 1934년의 「產米增殖計劃」의 中止에 의한 水利組合設立의 中斷까지 계속 보인다.⁴⁸⁾ 특히 水利組合에 대한 反對運動은 1922년에서 1928년까지에 현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東亞日報』의 1920年 4月에서 1928年 1月까지의記事에 나타난 農民의 水利組合에 대한 反對運動을 年代別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⁴⁹⁾

이러한 水利組合에 대한 反對運動中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이 不二興業會社의 水利組合의 경우

水利組合 反對運動發生 農場名 (1922—1928)

發生年度	農 場 名
1922年	中央, 延海, 靈光
1923年	平安, 博川, 咸安, 舒川, 延海
1924年	靈光, 迎日, 國賜洑, 延海, 益沃, 端川
1925年	若木, 良德, 安康, 長淵, 延海
1926年	東津, 積城, 富平
1927年	大正, 梁山, 高城, 松汀, 益沃, 牛頭, 亭淵, 黃龍, 東津, 富平, 西面
1928年	慶山, 陽東, 松汀, 延海, 林川, 美林, 州翼, 咸興, 安寧, 府北, 牛城, 龍仁, 平安, 黃龍, 順南, 富平, 大正

備考：——線을 그은 것은 不二興業系水利組合임。

48) 同上, p. 113 參照。

49) 『東亞日報』, 縮冊版(1920年 4月～1928年 12月). 西條晃, 上掲論文, pp. 113～114.

·이다.

不二興業 江原道 鐵原의 中央水利組合에 있어서는 1922年 1月 20日에 農民의 反對運動이 일어났다. 『東亞日報』(1922年 1月 21日字)의記事에 의하면 中央水利組合이 종래의 良畠에서 水源을 빼앗아 耕作을 할 수 없게 하고 있다고 하여 中核地主들이 反對運動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地主會의 決議文에는 「中央水利組合과의 우리 平康郡에 대한 관계를 보면 재래 良畠 1千餘町步(2萬斗落)의 水源을 杜絕시키면 耕作不能에 처해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에 대해 善後策을 講求하는 것과 同時に 當局에 具申하여 完全한 摊護를 얻어 被害를 未然에 防止할 것을 期한다. 平康四淮地主會」라고 記錄되어 있다. 더욱 地主(中核地主) 100餘名이 平康郡廳에 모여 示威하는 등 反對運動을 전개하였다고 한다.⁵⁰⁾

1924年 1月 28日字 『東亞日報』에 의하면 中央水利組合의 水利工事費는 최초 300萬円이었으나 후에 120萬円이 추가되어 總工事費 420萬円으로 되었다. 이 工事費負擔의 증가를 理由로 하여 不二興業會社를 비롯한 地主들이 다음해 (1925年)부터 小作料를 6割로 引上할 것을 결정하였다. 종래의 鐵原에 있어서의 小作料는 5割이었기 때문에 1割의 引上이 된다. 小作料引上에 대한 反對運動의 第一步로서 「小作人團體」를 組織하여 地主에게 反對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⁵¹⁾

1927年 2月 23日 및 27日字 『東亞日報』에는 不二興業會社傘下의 大正水利組合중에 있는 不二西鮮農場(平安北道龍川郡)에서 小作爭議가 발생한記事를 揭載하고 있다. 이러한記事에 의하면 小作人 250餘名이 同農場責任者이며 동시에 大正水利組合主任인 天草福太郎에 대하여 小作契約의 改善 및 水稅(水利組合費를 小作人에게 轉嫁한 것)의 免除를 요구하였다. 이곳의 小作人은 不二農場의 募集에 응하여 朝鮮各地에서 移住해 온 사람들이었다. 移住當時 農場側에서는 收穫標準을 1町步 最高 50石, 最低 15石이라고 말하고 있었으나 實제로는 最高 39石, 最低 3石밖에 收穫되지 않았다. 그러기 때문에 水稅·肥料代·貯水池擴張工事費負擔을 納付하면 小作人の 收入은 거의 없는 것과 같이 되다고 하여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으나 이 要求는 拒絕되었다. 이에 따라 小作人 600餘名이 農場主에게 嘆願書를 提出했다. 現地 龍岩浦의 警察署는 이 小作人の 要求에 대해 彈壓의 準備를 하였다고 『東亞日報』는 전하고 있다.⁵²⁾

다음해의 1928年 12月 28日字 『東亞日報』에서는 小作人の 反對運動이 계속되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즉 前年の 小作爭議에 있어서 不二農場은 8名의 犠牲者를 내었으나 小作人の 反對運動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彈壓이 심하여 反對運動을 계속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되었다. 警察의 彈壓을 免한 사람들은 4명의 代表를 京城에 보내어 總督府에 嘆願書를 提出했다. 嘆願書에 捤印한 農民은 1,058名이었으며, 그 嘆願書에는 隣近 3萬名의 農民의 死活問題가 걸려 있다

50) 『東亞日報』, 1922年 1月 21日字 : 西條晃, 上揭論文, p. 113 참조.

51) 『東亞日報』, 1924年 1月 28日字 : 西條晃, 上揭論文, p. 118 참조.

52) 『東亞日報』, 1927年 2月 23日 및 27日字.

고 記錄되어 있다.⁵³⁾ 不二興業會社 西鮮農場에 있어서는 1925年, 1927年, 1928年, 1930年, 1931년에 계속 小作爭議가 발생하고 있다.⁵⁴⁾

日本人 學者인 浅田喬二는 不二興業株式會社 鐵原農場에 있어서의 朝鮮人小作人에 대한 收奪과 壓迫狀況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同農場에 있어서의 朝鮮人 小作農에 대한 爪취는 朝鮮全國에서도 가장 가혹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⁵⁵⁾

江原道鐵原郡에 存在하는 不二興業株式會社 鐵原農場은 1931年 現在 農場面積은 3,684町步(畠 2,249町步, 田 1,435町步)이며 農場小作人은 1,150戶이었다. 小作人的 대부분은 남쪽의 이른바 「飢餓地帶」에서 移住하여 온 사람들이었다. 小作農 1戶當의 耕地面積은 2.7町步(畠 2.2町步, 田 0.5町步)이었으며 奋地帶로서는 朝鮮의 어느 地方보다 넓은 小作面積을 耕作하고 있었다고 한다. 農場의 小作料 徵收方法은 實際收穫量을 基準으로 하는 打租式方法에 의한 것이었으며 小作料形態는 現物納付이었다. 小作料는 6割이었는데 農場側에서는 4割이라고 하고 있으나 남은 2割은 「水稅」라는 名目으로 徵收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2割의 水稅는 高率의 水稅이며 1割만 하여도 충분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農場側에서는 小作料率 4割이라고 내세우면서 6割의 高額高率의 小作料를 정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 朝鮮의 徒來의 小作慣行으로서는 小作人的 水稅負擔이라는 慣行은 存在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小作人的 水稅負擔에 의한 實質的小作料의 增徵은 日本人 大地主의 새로운 收奪方式이었던 것이다. 田의 小作料率도 初換算의 6割이라는 高率이었다.

小作農의 平均粗收入은 現物로서 나타내면 畠에서 粮 77石(反營收量 3.5石), 田에서는 麥 5石이었다. 農作物收穫期의 小作料納付 때는 「春窮期」에 각小作人에게 貸付하였던 前貸食糧이 약 2割의 年利와 함께 現物糧로 控除된다. 王 農具·種子糧 등은 小作農의 全額負擔, 肥料는 半額負擔으로 되어 있는데 小作農에게는 이러한 生產手段을 自力으로 購入하는 能力이 없기 때문에 農場側에서 그것을 前貸하여 가을의 收穫期에 약 2割의 利子를 불여서 前貸金과 함께 粮로서 控除하였다. 農具와 肥料의 前貸의 경우는 農場側에서는 都賣價格으로 現物을 購入하여 小作農에게는 小賣價格으로 貸付하였다. 住宅에 대해서는 小作農은 移流民이었기 때문에 農場側에서 前貸하여 提供하였다(價格은 百円). 그 代價는 10個年 年賦償還이었으나 年賦金에는 2割

53) 『東亞日報』, 1928年 12月 28日字: 西條晃, 前揭論文, pp. 118~119 참조.

54) 이러한 小作爭議에 대해서 平安北道 内務部는 「不二農場과 同農場小作人에 대해서 組織된 小作人組合과의 사이에 開審費의 請求, 農資農糧(農業資金 및 食糧)의 貸付 및 이를 債務의 辨濟延期要求등 여러 가지 内容을 갖는 特種의 惡性의 것」이다…」(平安北道內務部『平北の農業』1937年, p. 169)라고 記載하고 있다. 이와같이 日帝는 對日本人大地主爭議를 「特種의 惡性의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淺田喬二, 「大正期一昭和十年代初期・朝鮮における抗日農民運動の地域的特徴(1920~1939年)」統計的分析を中心として『朝鮮史研究會 論文集』(第八集) 1971年 3月 p. 94 註 14 참조).

55) 淺田喬二, 『日本帝國主義と舊植民地地主制』, 前揭書, pp. 163~165 參照; 떠온 淺田은 印貞植, 『朝鮮の農業機構』, 1940年, p. 308에 의거하여 同農場을 소개하고 있다.

의 年利子가 붙었다. 또 農牛는 당시 2戶에 3頭의 比率로 強制配給이 되었는데 (價格 150円), 이것 역시 5個年 年賦償還으로서 利子는 年 2割이었다. 이 외에 備荒貯穀으로서 每年 1戶當 50円의 價格에 상당하는 粗 2.5石내외를 貯藏하도록 强要되어 있었다.

위와같이 奋·田에 대한 小作料를 비롯하여 貸付食糧과 그 利子, 貸付農具·種子·肥料와 그 利子, 家屋·農牛의 年賦償還金과 그 利子部分, 備荒貯穀 등의 일체를 年收穫物에서 控除하면 小作農의 손에 남는 粗는 平均하여 13.9石(收穫物의 1割 8分)에 지나지 않았다. 참고로 말해서 小作農의 손에 남는 粗는 京畿道金浦郡의 加藤平太郎農場에서는 2割 2分, 平安南道江西郡의 東洋拓殖農場에서는 2割이었다. 이로 미루어 不二興業株式會社 鐵原農場의 小作農에 대한 착취는 얼마나 가혹한 것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이상이 淺田喬二가 소개하고 있는 不二興業會社 鐵原農場의 실태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不二興業會社의 中央水利組合, 大正水利組合(不二西鮮農場)등에 있어서 農民들은 가혹한 착취에 전디지 못해 反對運動을 일으켰으나 그 運動은 거의 묵살되거나 彈壓되었던 것이다.

不二興業會社 산하의 水利組合 이외에서도 水利組合에 대한 反對運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앞서 논한 바와 같다. 이들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소개하겠다.

1931年에는 咸鏡南道, 東海灣 및 全羅南道의 各地에서 「高率의 水稅強奪에 反對하여 灌溉施設, 水利組合事務所 등을 襲擊破壞」하는 農民들의 反對運動이 전개되었으며, 1933年에는 慶尙南道 咸安의 水利組合에서 小作爭議가 있었다.⁵⁶⁾

한편 1922年 9月에 黃海道 海州郡의 農民들은 日本人經營의 鮮滿開拓會社가 貯水池를 만든다는 計劃에 反對를 하여 朝鮮總督府에 長文의 嘆願書를 提出했다.⁵⁷⁾ 이것은 鮮滿開拓會社가 中心이 되어 있는 延白水利組合이 水利事業을 실시하면 隣近의 農民 9千名이 水源을 잃게 된다고 하여 그 計劃에 反對를 한 것이다.

1927年 10月에는 京畿道의 富平水利組合에 있어서 小作料를 引上한 것이 原因이 되어 小作人們의 反對運動이 일어나기 시작했다.⁵⁸⁾ 同水利組合內에 組織되어 있는 「地主會」에서는 그해 가을부터 小作料를 舊奮에서는 6割에서 6割 5分으로, 新奮에서는 5割에서 6割로 각각 引上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를 알게 된 3,000餘戶, 數千名의 小作人們은 「農民組合」을 組織하여 對抗하려고 했다. 그들은 富川郡 吾丁面 吾丁里에서 創立總會를 열었으나 警察이 集會를 許可하지 않았기 때문에 正式的 創立總會를 열지 못하여 農民組合은 組織할 수 없었다. 正式的 創立總會는 1927年 10月 26日 富川郡 桂南面 素砂에서 開催되어 186名이 參席을 했다.⁵⁹⁾ 創立總會에서는

56) 西條晃, 前揭論文, p. 114 참조.

57) 『東亞日報』, 1922年 9月 25日字; 西條晃, 上揭論文, p. 113 참조.

58) 『東亞日報』, 1927年 10月 25日字.

59) 『東亞日報』, 1927年 10月 30日字.

10個條의 決議와 地主側과의 交涉委員을 결정하고 閉會했다. 10個條의 決議文中에는 小作料의 運搬은 10里(朝鮮里數로)以內로 할 것, 肥料代金의 負擔은 地主 6, 小作人 4의 比率로 할 것, 小作期間은 5年間으로 하고 그 期間에는 小作權을 박탈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正式으로 발족한 「農民組合」에 대한 警察의 監視와 彙壓은 심하였으며 이 總會에는 仁川署에서 5名의 巡查가 파견되어 있어 會場을 긴장된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고 한다.⁶⁰⁾

이상에서는 不二興業會社 산하의 水利組合과 其他 水利組合에 있어서의 農民(특히 小作人)의 反對運動에 대한 몇 가지 例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例示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水利組合을 통한 農民의 爪취는 심한 것이었다. 小作料는 水利組合內에 있는 日本人地主의 畜에 있어서는 實質적으로 5割 이상 6割 전후의 高率이었다.⁶¹⁾

水利組合에 대한 反對運動은 당초 水利組合內의 中小地主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中小地主들은 水利組合의 設立 前後에는 水源問題, 水利組合費의 負擔問題 등이 절실한 問題가 되었기 때문에 地主會를 열어 決議文作成, 陳情書提出 등의 형태로 反對運動을 일으켰다. 그러나 얼마 아니가서 水利組合費가 地主로부터 貧農에게 轉嫁되면서부터 中小地主들의 反對運動은 그 자취를 감추게 되고 그 후부터는 小作人등 貧農에 의한 反對運動이 전개되어 갔다.⁶²⁾ 예를 들어서 不二興業株式會社의 中央水利組合에서는 1922年 1月에 平康地主會가 抗議하는 決議文을 작성하여 郡當局에 提出한 事件(前述) 이후로는 地主(中小地主)의 反對運動은 그 자취를 감추고 그 후부터의 反對運動은 小作人の 反對運動이 되었다. 小作人등 貧農의 反對運動은 水利組合費의 徵收에 대한 反對, 혹은 水利組合費를 구실로 한 小作料의 引上에 反對한 것이었다. 貧農의 反對運動은 많은 경우 그 發展過程에서 農民自身의 組織을 형성하고 있다. 예컨대 不二農場의 경우에는 「小作人組合」, 富平水利組合의 경우에는 「農民組合」이 組織되었으며, 그 組織內容을 보면 「小作」, 「自小作」, 「雇農」등 基本的으로 貧農階層으로 구성되어 있다.⁶³⁾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水利事業을 통하여 日本人地主와 一部 朝鮮人大地主에게 土地集中이 이루어 졌으며, 또한 水利組合費의 負擔을 이유로 하는 小作料의 引上이 强行되었다. 水利組合內의 中小地主의 反對運動은 土地集中에 反對하여 自己의 小經營을 지키려고 하는 運動이었으며, 小作人등 貧農의 反對運動은 水利組合費徵收 및 小作料引上에 反對하는 運動이었다. 小作人등 貧農의 反對運動은 中小地主의 反對運動에 比해 과격하며, 實力行使를 수반하였다. 中小地主의 運動은 水利組合費의 負擔을 小作人등 貧農에 轉嫁한 이후로는 그 자취를 감추었다. 水利組合事業으로 貧農에 대한 爪취는 강화되어 간 것이다.

60) 西條晃, 前揭論文, p. 119 참조.

61) 同上, p. 103 참조.

62) 同上, pp. 117~118 참조.

63) 同上, p. 118, p. 120 참조.

V. 成業社의 形成과 不二興業會社의 吸收

成業社는 1931年 5月에 朝鮮殖產銀行의 傍系會社로서 設立되었으며 1945年 8月의 解放이 후에는 韓國人에게 引繼되고, 1965年 10月 5日에 解散되었다. 이 會社의 主業務는 不動產經營이었다. 株式會社 成業社의 「事務引繼書」⁶⁴⁾ (1965年 10月 5日)에 의하여 「會社解散으로 因한 事務引繼의 經緯」를 보면 다음과 같다. 즉 當會社(成業社一引用者)는 西紀 1931年 5月 20日 韓國殖產銀行의 傍系會社로서 主로 不動產經營을 目的으로 設立되었으며 8.15解放 후 韓人代表理事가 業務를 承繼擔當하여 所有不動產의 守護管理, 經營에 銳意努力하여 오던 중 西紀 1964年 以來 殖產銀行清算委員會에서 當會社株式에 對한 處分策을 論議하여 오다가 去 西紀 1965年 6月 30日 韓國殖產銀行 第94期 通常株主總會에서 當會社 株式價格을 額面價格에 不拘하고 總額 壹億4百萬원으로 定하여 이 株式을 政府앞 現物分配키로 議決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西紀 1965년 7月 13日 株式所有者 名儀를 大韓民國政府 財務部長官앞으로 名義改書를 마쳤던 바 去 西紀 1965년 9月 16日字로 財務部長官으로부터 當會社는 業種으로 보아 더 以上 存續할 必要가 없으며 解散整理가 妥當하다는 文書指示가 있어 본 臨時株主總會에서 會社의 解散을 議決하게 된 것임.

10月 2日 臨時株主總會에서 10月 5日字로 解散하기로 決議되다 以上」.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成業社는 1965年度에 이르러 解散되었으나 日帝時代에는 朝鮮殖產銀行의 傍系會社로서 土地經營을 主業務로 活動하였던 것이다.

成業社에 관하여 조금 더 살펴보자.

1941년(昭和 17년) 現在 殖產銀行系의 20社(金融機關 除外)의 資本金의 合計는 公稱 1億4,450萬圓, 拂込 1億 1,200萬圓이었는데, 이중 日本 高周波重工業과 그 子會社가 約 60%를 차지하였으나(이에 漢江水電氣를 加하면 約 70%가 된다). 나머지 30%는 成業社와 그 子會社인 不二興業(그 子會社 朝鮮農機具製造) 및 朝鮮開拓과 기타 6社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⁶⁵⁾ 成業社의 資本金(公稱資本金)은 200萬圓이었다(表 9 參照).

더욱 不二興業과 朝鮮開拓은 成業社의 子會社이지마는 이중 朝鮮開拓(舊名 鮮滿開拓 資本金 400萬圓)은 「昭和 6年 (1931年)에 川上佐太郎 및 기타의 大株主들의 希望에 의하여 全株式을 殖銀의 固定貸出整理會社인 成業社에 引繼」⁶⁶⁾ 그 子會社로 된 것이다. 不二興業도 (1930, 1931년) 破產直前에 놓였으나 殖產銀行 등의 援助로 再起하였다. 이리하여 朝鮮開拓과 不二興業은 成

64) 株式會社 成業社, 『事務引繼書』(報告書) (1965年 10月 5日).

65) 東洋經濟新報社編, 『年刊朝鮮』1942, p. 33 參조.

66) 中川龜三, 前揭書, p. 63.

〈表 9〉

朝鮮殖產銀行의 例系會社(產業會社) (1942年)

(單位: 千圓)

會社名	公稱資本金	拂込資本金
日本高周波重工業	50,000	50,000
日本마그네사이트화학工業	5,000	5,000
金剛特殊鑄山	4,000	2,500
朝陽鑄業	5,000	1,250
利原鑄山	1,000	1,000
雲松鑄山	1,000	1,000
若山	1,500	1,500
鯨水鑄山	1,000	575
日本炭素工業	3,000	2,250
漢江水力電氣社	25,000	12,500
成業	2,000	500
不二興業	4,000	4,000
朝鮮農機具製造	1,000	500
朝鮮開拓	4,000	3,250
朝鮮製鍊	10,000	7,400
朝鮮電線	2,500	2,000
國產自動車	2,500	1,250
京春鐵道	10,000	5,000
朝鮮郵船	10,000	10,000
朝鮮書籍印刷	2,000	500

資料：東洋經濟新報社編, 『年刊鮮鮮』1942, p. 33.

業社의 子會社로서 殖產銀行의 援助에 의해 1930年代의 어려운 고비를 넘긴 것이다. 成業社는 이 두 會社를 子會社로 傘下에 두면서 朝鮮殖產銀行에 의해 設立된 것이다. 朝鮮開拓과 不二興業會社는 둘다 土地의 干拓·開墾事業(土地經營)을 主事業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의 母會社인 成業社는 上記한 바와 같이, 「殖銀의 固定貸出整理會社」로서 土地經營을 主事業으로 하고 있던 것이다.⁶⁷⁾

成業社의 日帝時代의 社勢는 具體的으로 알 수가 없으나 1965年の 解散當時의 資產關係를 보면 아래와 같다.⁶⁸⁾ 이로써 대충 그 社勢의 強力함을 推測할 수 있을 것이다. 不動產 중 주축을 이루는 土地는 田, 塚기타를 合하여 696,245坪이며, 建設은 建坪(合計) 1,975坪, 林野는 (林田合計) 257,104坪이다. 즉, 建物(建坪)을 除外한 田塚 및 林野의 總坪數는 953,349坪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⁶⁹⁾ 이로서도 不二興業이나 朝鮮開拓을 통한 成業社의 農民收奪이 얼마나 廣大한範圍에까지 미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67) 同上 참조.

68) 株式會社 成業社, 『事務引繼書』 참조.

69) 同上, 『事務引繼書』에서 合計하여 算出한 것임.

VI. 結 言

이상에서 不二興業會社와 그 社長이었던 藤井寬太郎을 中心으로 日本人地主들의 農民收奪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그와 동시에 不二興業會社의 生成·發展 및 成業社에 의한 吸收와 成業社의 成立 및 解散까지를 살펴 봄으로써 水利事業을 통한 不二興業會社의 農民收奪狀況과 이에 대한 農民의 抵抗 및 反對運動, 그것에 대한 日帝의 彈壓 등 植民地 韓國農村·農民의 悲劇——貧困의 原因을 살펴 보았다.

藤井寬太郎은 不二興業會社의 傘下에 臨益水利組合과 不二全北農場, 益沃水利組合과 不二沃溝農場, 大正水利組合과 不二西鮮農場, 中央水利組合과 不二鐵原農場 등을 두고 이른바 朝鮮의 「水利王」으로서 朝鮮農民을 收奪하였다. 不二興業會社는 朝鮮殖產銀行의 資金支援을 비롯하여 日本政府, 朝鮮總督府 및 東拓 등의 支援을 받아 그 傘下의 水利組合과 農場을 維持 및 擴張시켰다. 1930年代初의 倒產危機時에도 殖產銀行의 資金 支援으로 그 危機를 克服하였다. 그후 成業社의 傘下에吸收되었다. 不二興業會社에 대한 支援이 이루어진 것은 藤井寬太郎의 能숙한 手재주에도 原因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藤井이 당시의 產米增殖政策에 적극 협력한 점 등 日帝의 植民地政策에 符合되는 事業을 앞장 서서 하였다는 점에 그 주된 原因을 求할 수 있다.

藤井은 日帝의 權力과 金力を 背景으로 不二興業會社를 經營하면서 移住 日本人農民은 물론 韓國人農民을 收奪하였다. 藤井은 日本人農民을 韓國에 誘致하는데 先峰的 役割을 하였을 뿐더러 日本人農民을 滿州에 까지 移住시키는데도 힘쳤다. 日本人農民들은 韓國移住 후 韓國農村事情에 眼아지자 藤井의 農場에서 뛰쳐나와 高利貸金業者로서 혹은 自作農經營者로서 溫順한 韓國農民을 騁迫과 壓迫으로 收奪하였던 것이다.

藤井의 「暴舉는各方面」의 批難을 받았으나 그의 韓國 農民에 대한 收奪은 계속되었다. 藤井의 不二興業會社를 비롯한 日本人地主들의 水利事業을 통한 農民收奪에 대하여 韓國農民은 계속 反對運動을 전개하였다. 水利事業費負擔, 6割에 달하는 小作料引上, 기타 肥料·農牛·住宅食糧 등 各種農業資金 및 生活必須品의 前貸와 그 利子 등에 의해 小作人 내지 貧農에 대한 壓迫은 加重되어 갔다. 이러한 가혹한 日本人地主의 收奪에 대하여 農民들은 抵抗하였으나 日帝의 심한 彈壓을 받았다. 韓國農民은 日帝의 심한 彈壓을 받으면서도 「小作人組合」, (不二農場) 「農民組合」(富平 水利組合) 등 農民自身들의 組織을 형성하여 日本人地主의 作취에 대한 反對運動을 전개하였다.

干拓 및 開墾事業에 重點을 둔 不二興業會社의 土地擴張 내지 收奪方法은 既存土地의 買收에 力點을 둔 東拓, 朝鮮興業會社(瀧澤系), 東山農事會社(三菱系)와는 그 方法이 달랐으나 이들 日本人農場經營者들이 韓國農民을 괴롭히고 收奪한 점은 大同小異한 것이었다. 1925年頃에 있

어서 「日本人會社 및 日本人個人의 小作制農場이 集中하고 있는 地帶에 있어서 集團的小作爭議」⁷⁰⁾가 發生한 사실이라던지, 韓國小作人의 對日本人地主爭議件數가 1933年の 379件에서 翌年の 1934年에는 3倍 이상의 1,178件으로 급증하고, 1935年에는 前年の 2.5倍 이상의 3,000件이 發生하고 있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⁷¹⁾ 이러한 小作爭議는 1925年頃부터 매년 증가하였던 것이다.

日本人地主의 韓國農民收奪研究는 日帝 植民地下의 韓國社會經濟史研究에 있어서 看過할 수 없는 問題인 것이다. 특히 藤井寛太郎과 그의 不二興業會社에 의한 韓國農民收奪은 看過할 수 없는 問題인 것이다.

〈附 記〉

1925年 現在에 있어서의 在韓日本人地主의 概況은 다음 附表와 같다.

〈附表〉 資本性格別・系譜別 日本人地主所有面積・土地所在地

1925年 現在(單位:町步)

地主名	創業年	所有面積	土地所在地
國家地主(驛屯土)	1908	101,367	全朝鮮各地
東洋拓殖會社	1908	85,410.3	全朝鮮各地
鮮滿拓殖會社	1936 (1938年)	21,540.0	咸鏡南道 甲山郡(1938年)
日本地主			
鍛田勝太郎	1905	1,215.7	全羅南道 康津・靈岩・務安・羅州・咸平郡
朝鮮實業會社 (鍛田勝太郎)	1905	3,355.5	全羅南道 康津・海南・靈岩・務安・羅州・咸平郡
石川縣農事會社	1907	1,571.6	全羅北道 金堤・井邑・扶安郡(1922年 全羅北道 井邑・扶安郡 平安北道 龍川郡, 江原道 鐵原・平康郡)
諸戶清六	1917	815.9	全羅北道 扶安・全州・金堤・益山・沃溝郡
愛知產業會社	1920 (1922年)	3,025.0	(1922年: 江原道 准陽郡)
牛田善四郎	1920	871.8	京畿道 富川・金浦郡
二葉社白勢春三	1920	888.2	全羅北道 全州・金堤・鎮安・沃溝・益山郡

70) 浅田喬二, 「大正末期—昭和十年代初期・朝鮮における抗日運動の地域的特徴(1920~1939年)——統計的分析を中心として——」, 『朝鮮史研究會論文集』(第八集), 1971年 3月 p.72.

71) 同上 p.73 참조 : 더욱 1933~1936年に 있어서의 日本人地主에 대한 朝鮮人小作人爭議의 代表의인 것은 다음과 같다(同上 p.73)

咸鏡南道 高原郡의 東洋拓殖會社 高原農場爭議

慶尚北道 慶山郡의 朝鮮實業會社 農場爭議

全羅南道 康津郡의 鍛田勝太郎農場爭議

慶尚南道 金海郡의 追間房太郎農場爭議

全羅北道 金堤郡의 多木條次郎農場爭議

全羅北道 全州郡의 細川護立農場爭議

全羅北道 沃溝郡의 熊本利平農場爭議

平安北道 龍川郡의 不二興業會社 西鮮農場爭議 등.

地主名		創業年	所有面積	土地所在地
華族地主	細川護立	1904	2,142.6	全羅北道 全州・金堤・益山・群山・扶安郡, 全羅南道 光州・潭陽・長城・全州郡
	徳川頼倫(頼貞)	1916	901.7	京畿道 振威郡, 全羅南道 光州・羅州・長城郡
기타 地主	慾本利平	1903	2,978.4	全羅北道 全州・井邑・扶安・沃溝・金堤・益山郡
	朝鮮殖產銀行	1918	256.0	全羅南道 海南・靈岩・務安郡・黃海道 安岳郡(1931: 黃海道 海州郡, 平安南道 安州郡, 江原道 鐵原郡, 咸鏡北道 明川・富寧郡)
大阪商人	阿部市郎兵衛	1911	1,690.2	全羅南道 靈光・海南郡
	阿部市太郎	1912	826.0	全羅北道 金堤・扶安・井邑郡
	八木正治	1920	991.1 (1929年)	(1929.) 全羅北道 沃溝郡
	不二興業會社 (藤井寛太郎)	1904	7,911.5	忠清南道 論山郡, 全羅北道 全州・益山・金堤・井邑・沃溝郡 黃海道 海州郡, 平安北道 龍川郡, 江原道 鐵原郡
長岡商人	川崎藤太郎	1905	932.3 1,565.1 (1922年)	全羅北道 益山・沃溝郡, 全羅南道 長城郡, 慶尚南道 昌寧郡
	瑞穂農場 (川崎藤太郎)	1914	776.7 1,301.4 (1922年)	平安道 安州郡
	川上佐太郎	1915	815.0	黃海道 瓠津郡
	鮮滿開拓會社	1920	3,339.6 5,563.8 (1929年)	黃海道 海州・延白郡(1929年: 京畿道 金浦郡, 黃海道 延白・海州郡)
其他商人地主	國武金太郎	1906	1,661.1	京畿道 水原・振威・龍仁郡, 忠清南道 論山・扶餘郡, 全羅南道 務安・海南・咸平郡
	森六郎	1907	1,150.6	黃海道 黃州郡, 平安南道 龍岡郡
	明治農會 (瀧兵右衛門)	1909	1,091.1	黃海道 黃州郡
金融業關係地主	鳩谷八十八 (武次)	1904	970.3 1,437.0 (1931年)	全羅北道 沃溝郡(1931年: 全羅北道 沃溝・金堤・益山郡)
	右近權左衛門	1914	2,231.7	忠清南道 論山・扶餘・青陽郡, 全羅北道 全州・井邑・扶安・金堤・益山郡
	日海興業會社 (右近權左衛門)	1914	922.6 2,528.6 (1922年)	忠清南道 大田・論山・扶餘・禮山・唐津・牙山・天安郡, 黃海道 戴寧・安岳・信州郡
	村井吉兵衛	1905	3,573.7 4,212.0 (1908年)	慶尚南道 昌原郡(1908年: 慶尚南道 金海・昌原・咸安・梁山郡)
	大橋與市	1907	1,152.6	全羅北道 金堤・沃溝・益山郡
人第資本級地主 在韓日本	齊藤久太郎	1912	1,097.2	黃海道 長淵・松禾・安岳・信川・戴寧郡, 平安南道 龍岡郡
	迫間房太郎	1918	222.2 4,435.0 (1931年)	全羅南道 海南郡, 黃海道 海州郡(1931年: 全羅北道 南原郡, 全羅南道 海南郡, 慶尚南道 東萊・金海・密陽・山淸・晉州・蔚山・泗川・釜山府・馬山府・昌原・昌寧・河東・梁山郡)
	加藤平太郎	1920	107.3 7,639.4 (1929年)	黃海道 安岳・長淵郡(1925年 全羅南道 靈光郡, 黃海道 安岳・長淵郡)

地主名	創業年	所有面積	土地所在地
中 小 (在 韓 日 本 人) 資 本 地 主	中柴產業會社 (中柴萬吉·中野宗三郎)	1906 688.7 1,046.7 (1929年)	全羅北道 金堤·沃溝郡(1925年 全羅北道 金堤郡, 忠清南道 論山郡)
	高瀬政太郎	1907 2,131.5	京畿道 始興·金浦·富川郡, 忠清南道 天安郡, 全羅南道 光陽 麗水郡, 慶尚北道 尚州·金泉郡, 慶尚南道 東萊郡
	金谷一二	1911 991.6	全羅南道 光陽·順天·寶城·高興郡
	福田有三	1920 376.3 732.6 (1929年)	全羅南道 海南·靈岩·羅州·靈光郡
	片倉殖產會社	1908 1,474.1	黃海道 海州郡, 平安南道 中和郡, 平安北道 寧邊郡
獨 占 資 本 地 主	安川·松本農場 (明治鐵業會社)	1914 1,317.2	黃海道 殷栗·安岳·黃州郡
	中部農事會社 (中部義次郎)	1915 375.0 889.0 (1931年)	慶尚南道 金海·東萊郡(1931年: 慶尚南道 蔚山·金海·梁山 東萊郡)
	大林組農場	1928 2,314.0 (1931年)	黃海道 安岳郡
	(多木条次郎)	1918 2,292.9	全羅北道 井邑·沃溝·金堤·益山郡
	朝鮮興業會社	1904 14,480.4	忠清南道 大田·天安郡, 全羅南道 海南·務安·羅州·咸平· 珍島郡, 慶尚北道 慶山·永川郡, 黃海道 黃州·鳳山·瑞興郡 慶尚南道 金海·昌原·東瓮·昌寧·清道郡
財 閥 地 主	大倉農場 (大倉喜八郎)	1904 1,642.5	全羅北道 沃溝·益山郡
	東山農事會社 (岩崎久彌)	1907 5,523.2 12,510.4 (1922年)	京畿道 水原·龍仁·始興·振威郡, 全羅北道 全州·金堤·益 山郡, 全羅南道 光州·靈岩·羅州郡, 黃海道 與瓮郡

資料: 淺田喬二, 『日本帝國主義と舊植民地地主制』, 御茶の水書房, 1968, 274~289面 (附表)에서 발췌 하였음.

備考: 淺田喬二是 日帝下 朝鮮에 있어서의 日本人 大地主階級을 資本性格 및 系譜에 따라 分類하고 있다
즉 그는 1908(明治 41年)에서 1931年(昭和 6年)까지의期間에 1개년이라도 800町步 이상의 耕地를
所有하고 있었던 48명의 日本人 大地主中 資本性格別·系譜別로 分類可能한 45명의 大地主를 分類
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는 上記 45명의 日本人大地主를 (I) 國家·半國家地主 (3名), (II) 日本
本國地主(7名)·華族地主(2名)·기타 地主(2名), (계 11名) (III), 商業·金融·獨占 資本 및 財閥
地主(31名)으로 나누고 있다(淺田喬二, 同上 pp. 114~115 참조).

이러한 分類 方法에는 問題도 있으나 여기서는 淺田의 分類대로 계제하여 두겠다.

